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3호 [루게 제25031호] 주제 104 (2015)년 9월 10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태양을 따르는 청춘의 노래》를 관람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태양을 따르는 청춘의 노래》
를 관람하시었다.

황병서동지, 최룡해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
김양건동지, 리일환동지,
전용남동지를 비롯한 당과
군대의 책임일꾼들, 인민군장
병들, 군대와 사회의 예술단체
성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게 된
출연자들의 가슴가슴은 청년
들을 기증한 전우로, 최후승
리의 그날까지 혁명을 같이할
젊은 주력부대로 불러주시고
참된 삶과 행복을 마음껏 누
려가도록 따듯이 보살펴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심으로
하여 뜨겁게 끓어번지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관
람자들은 청년강국의 주인공이
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청년들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정력적인 형태로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
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소합창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
《인민의 환희》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설화시와 남성독창 《금방석》, 제단
《청춘의 이쁨》, 하모니카와 혼성중창
《당을 따라 청춘들이 앞으로》, 혼성2중
창 《우등불》, 어은금독주와 방창 《젊음
은 금행렬차》, 남성기타5명창 《우리
앞날 밝다》, 국이악기 《500만의
신념》, 남성4중창 《가리라 백두산
으로》, 선동과 독연 《청년혁명
학교》, 가무와 민족기악3중주 《우리
민족 제일일세》, 혼성중창이야기 《체육
열풍종다》, 선동극 《천백배로 복수하리
라》, 혼성중창 《전선행렬차》, 여성독창
《내가 지켜선 조국》, 북과 노래 《해안포
병의 노래》, 시이야기 《위대한 태양의
품》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다.

출연자들은 청년중시를 혁명의 제일
중대사로 일관하게 내세우시고 청년강
국건설의 만년기쁨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과 이 땅위에 청년사랑의 대화원을 펼쳐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적
품모를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키워주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청년대
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청춘의 활력으로 부강하는 청년
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릴것
이라는 확신과 백두산칼바람에 뜻을 달
고 광활한 미래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열혈청춘들의 전투적기백과 랑만을
감명깊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품모를
보여주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
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진행한 공연은 우리 당의
70년 력사는 청년중시의
력사, 불패의 청년강국을 일떠
세운 력사라는것을 보여준
공연, 당에서 제시한 정책적
문제들을 민감하게 반영한
만점짜리 공연, 자신께서 청년
들에게 하고싶은 말을 다 담
은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공
연, 지금까지 본 예술선전대공
연중에서 최고의 공연이라고
거들거들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이 언제나 승리의 한
길만을 걸어올수 있었으며 우
리가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
관을 이겨내고 혁명의 전취물
과 사회주의를 고수할수 있는
것은 우리 당이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워
왔기때문이라고 감지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
전의 선봉에서 전격로를 열어나가는
선군청년전위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
품모와 전취적이며 무궁무진한 힘과
열정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온 세상에
청춘의 기상과 위력을 떨치며 승승장구
해나가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세상에
도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최
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500만 청
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준 공연은
소합창 《조선청년행진곡》,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태양의 품속

에서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축부대로 억세게 자라고있는
선군청년전위들의 불굴의 기상을 파시
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러져올리는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중앙
예술선전대원들이 청년들의 특성에 맞고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선군청년문화를 창조하고있는 우리

2 면 으 로 계 속

